

설 가정예배 순서



2024년 2월 10일(토)
인도_가족 중에서

묵상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빌립보서 4:6-7 인도자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인도자

기도 인도자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같이

주님의기도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림

1. 설교문은 뒷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 하시네

성경 빌립보서 4:6-7

⁶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⁷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과테말라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자기 자녀가 여러 가지 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 자녀에게 조그만 인형을 쥐여주며 “인형에게 너의 걱정을 이야기하고, 베개 밑에 두고 자면, 인형이 걱정을 대신 해 준단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인형을 ‘걱정인형(Worry Dolls)’이라 부릅니다. 걱정인형은 보통 5개가 한 세트로 구성되는데, 아이들은 자기 걱정을 각각의 인형에게 하나씩 말한 후에 베개 밑에 두고 잠을 잡니다. 자녀가 자는 동안에 부모는 이 베개 밑에 있는 인형을 치우고서 아침에 일어난 자녀에게 “어제 네가 말한 걱정과 두려움은 인형이 모두 가져갔단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온 염려는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하며,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는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질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염려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판에 박힌 듯하게 들리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방안은 없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자녀에게 부모는 “스마트폰 갖고 놀지 말고, 공부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과도하게 잠을 잔다든지,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마트폰을 갖고 놀지 마.”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직 공부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갖고 놀지 않는 것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것은 바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염려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에 유일하면서도 최고의 해결책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 기도에 대한 단어를 3번이

나 반복합니다. ‘기도’는 ‘공예배의 기도’를 의미하는데,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생길 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염려를 해결하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간구’는 ‘개인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에 사무치는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때때로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바뀔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보면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염려가 해결될 때 감사하기는 쉽지만, 염려할 것이 눈앞에 있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을 앞에 두고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순종과 함께 우리 믿음생활에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염려는 마음(감정)과 생각(정신)에서 나옵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그가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가장 적합한 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 중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어 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를 드리고, 우리도 그런 가족과 조상이 되기를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복을 지어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십시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연다면,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가(名家)’가 될 것입니다.

작성_정한조